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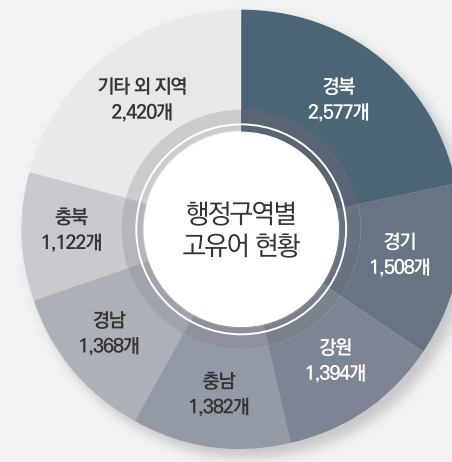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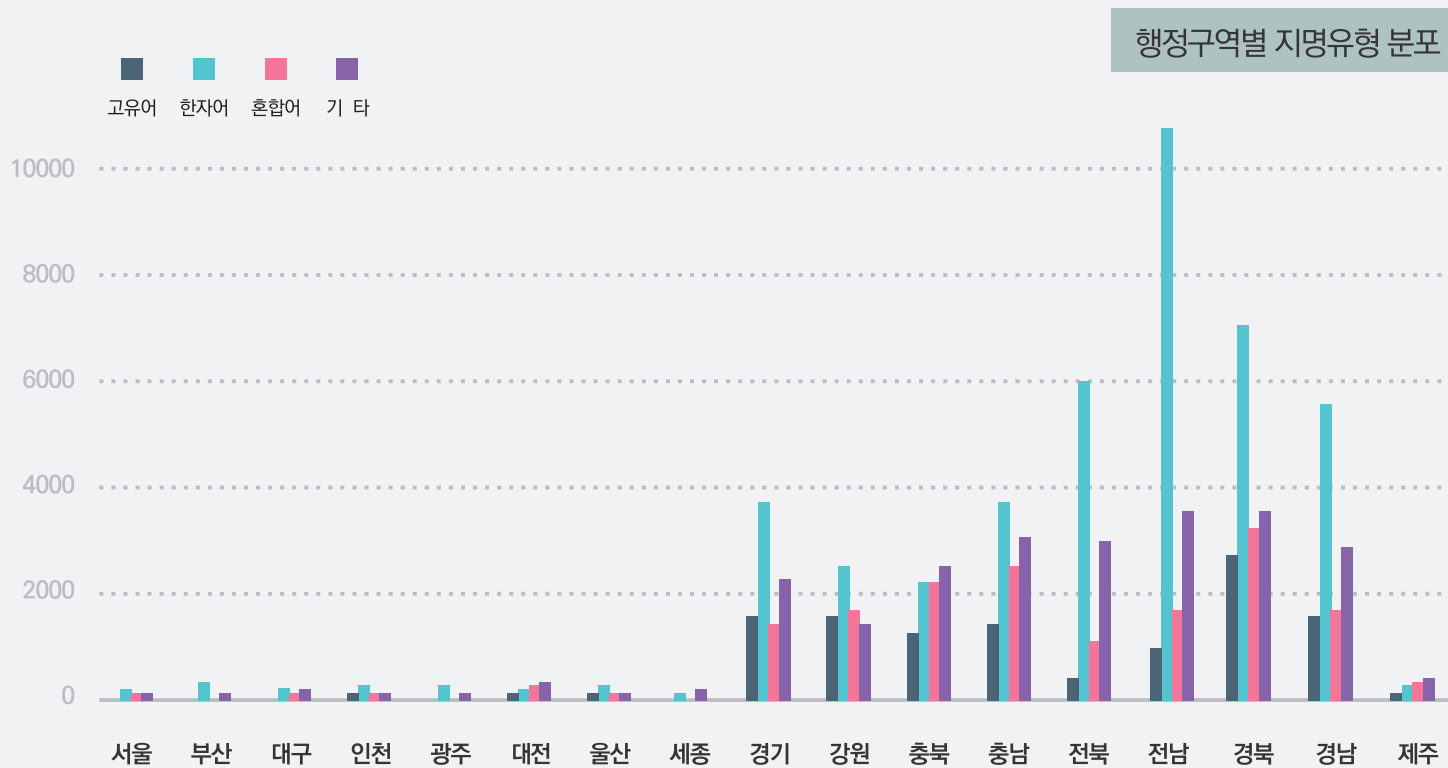
한글날 맞이 지명 이야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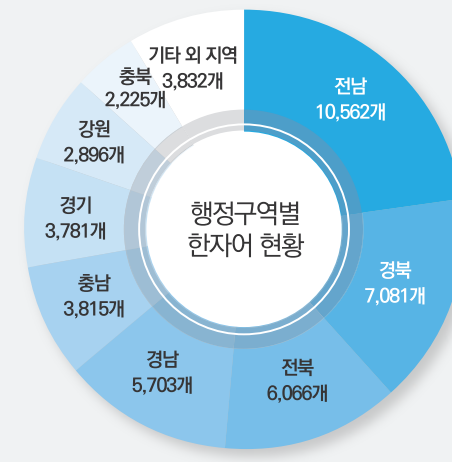
국토지리정보원은 2020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지명에 나타난 우리말을 찾아보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.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명에는 고유어와 한자어 그리고, 이 둘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혼합어 등이 있습니다.

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국의 지명은 약 10만 개인데, 그중 순우리말로 이루어진 **고유어 지명**은 전국에 **11,771개**가 있었고, 한 음절이라도 한자가 있으면 제외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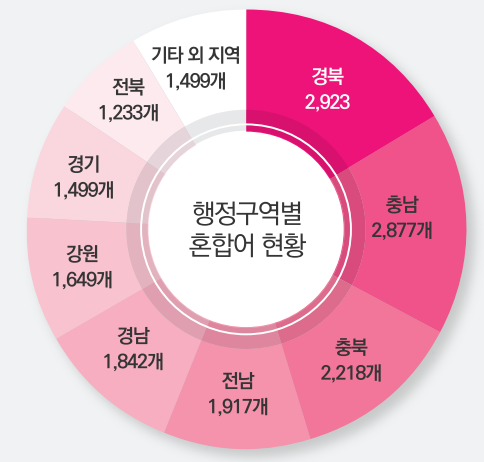
또한,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**한자어 지명**은 전부 한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**45,961개**로 나타났고, 고유어와 한자어 조합인 **혼합어 지명**은 **17,657개**로 파악되었습니다.



경북 경기 강원 충남 경남 충북 기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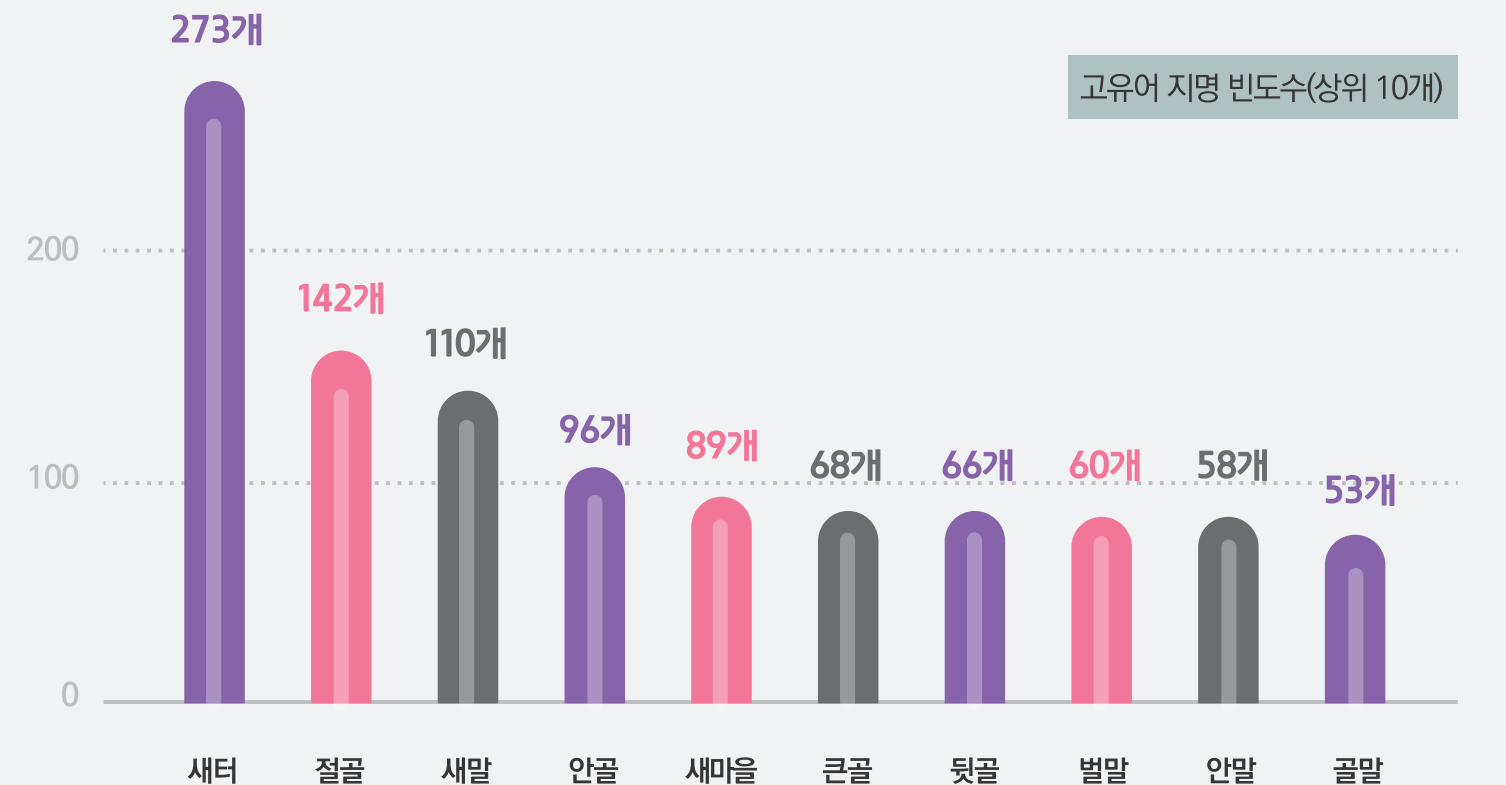
전남 경북 전북 경남 충남 경기 강원 충북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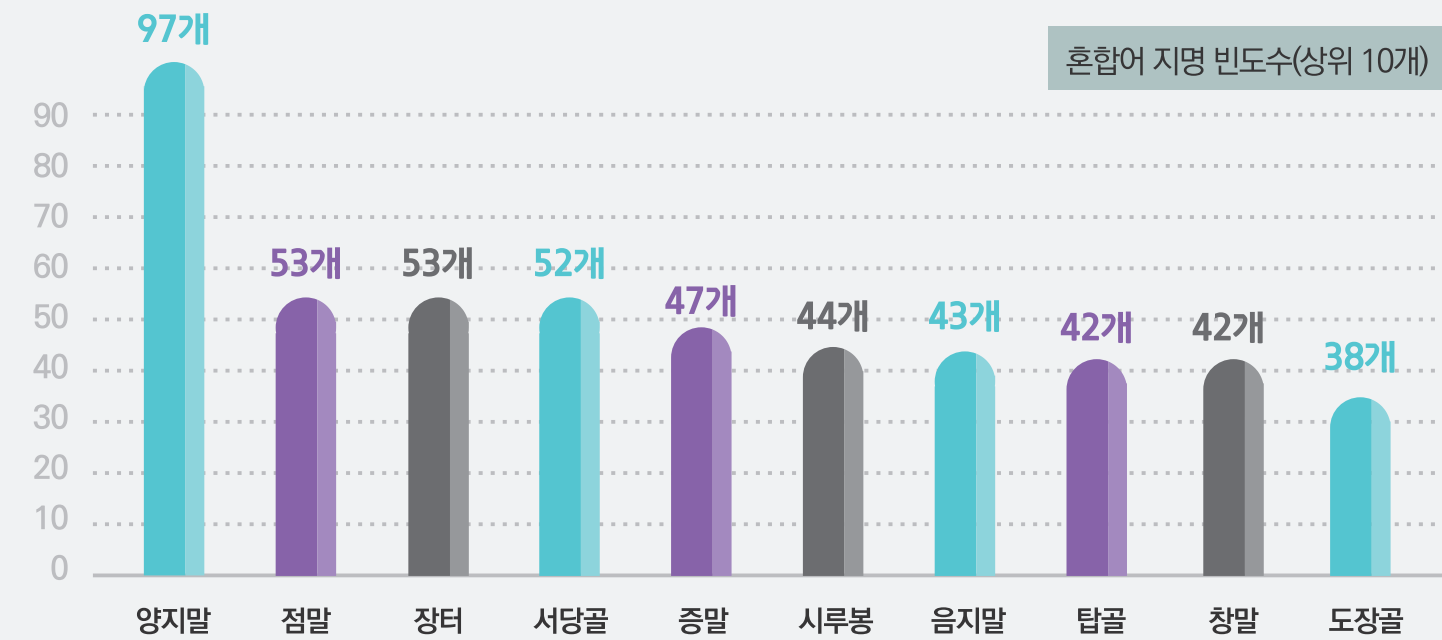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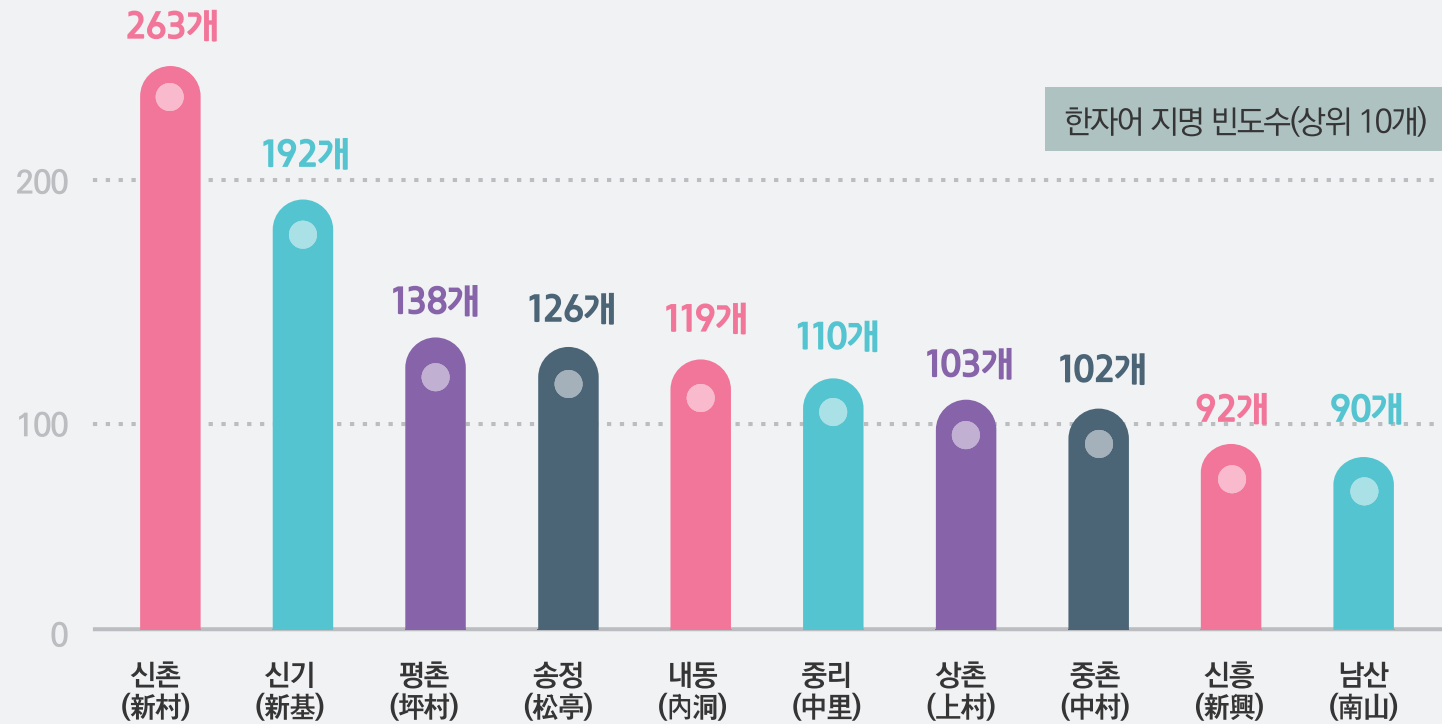


경북 충남 충북 전남 경남 강원 경기 전북 기타

같은 이름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지명은?

고유어 지명 중 전국적으로 **‘새터’**라는 지명이 273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며, 한자어 지명은 **‘신촌(新村)’**이 263개, 혼합어 지명은 **‘양지말(陽地말)’**이 97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



■ 마을과 산의 유형별 분류

지명의 종류도 이처럼 유형별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, 그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마을과 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.

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장 작은 거주 단위인 마을의 경우 뒷부분에 ‘골’이나 ‘말’, ‘뚝’, ‘촌(村)’ 등이 붙어 있습니다. 전국의 마을 지명 75,340개 중 고유어는 4,300개로 나타났습니다.

마을의 뒤를 이어서 산은 전국에 6,339개가 있으며, ‘뫼’, ‘오름’, ‘봉’ 등이 지명 뒤에 붙어 산을 의미합니다. ‘뫼’와 ‘오름’이 쓰인 고유어 산지명은 전국에 161개입니다.

서울시 중구 남산



산 지명에는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. 그 중 ‘남산 (南山)’이 101개로 가장 많이 사용되며, 봉우리 이름 으로는 ‘국사봉(國師峰)’으로 80개가 있습니다.

※ 사진출처:
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
(공원사진사 이현자)

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지명

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지명은 고유어 지명 중에 있습니다.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‘옥낭각씨베짜는바위’라는 바위의 이름으로 9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‘각씨’는 ‘각시’를 뜻하는 지역어입니다.

바로 앞의 가창저수지를 내려다보고 있는 이 바위에는 “바위산이 베를 찔 수 있을 정도로 넓어서 옛날, 이 바위 속에서 옥낭각시가 베를 짜다가 총각에게 쫓겨서 하늘로 올라갔다”라는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.

또한, “임진왜란 당시 마을의 처녀와 결혼하기로 한 총각이 전장에 나가 전사하여 돌아오지 못하게 되자, 처녀는 이 바위에 올라가 죽을 때까지 총각을 그리워하였다.” 하여 ‘옥녀바위’, 또는 ‘각시바위’라 부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

‘옥낭각씨베짜는바위’와 가창저수지



‘옥낭각씨베짜는바위’ 가는길



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(2016년)





■ 인간생활과 밀접한 지명 속 흥미로운 이야기

고유어 중 하나인 ‘장승’은 “예로부터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절 어귀나 길가에 세운 푯말이며, 10리나 5리 간격으로 이수(里數)를 나타내 이정표 구실을 하거나,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.”라고 전해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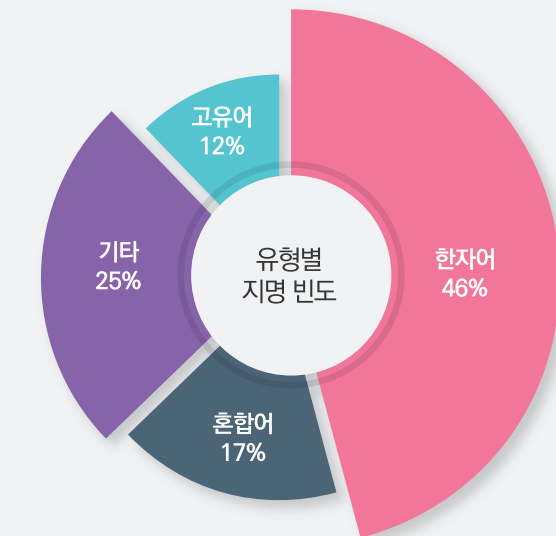
‘장승’과 관련된 지명은 전국에 39곳이 있습니다. 유형은 ‘장승+거리’, ‘장승+고개’, ‘장승+백이’ 등이 존재하며 이 중 고유어 지명 32개, 혼합어 지명 7개 순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.

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에 있는 ‘초정(椒井)’ 마을은 한자어 지명으로서, 약수로 유명한 곳이며,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이곳에 온 일이 있다고 합니다.

『세종실록지리지』에 “청주에 물맛이 산초(椒) 맛과 같다고 하여 이름을 초수라고 하는 물이 있는데,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다.”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. 『여지도서』에도 “초수는 초정(椒井)이라고 한다.”라는 내용이 있으며, 1972년까지 사용되었던 초정약수의 원탕은 ‘초정영천’이라고 부르며, 현재는 보호각을 지어 보존하고 있습니다.



한글날을 계기로 지명을 분석해 본 결과, 우리의 지명은 한자어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오래된 한자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



오늘날에는 한자어와 한자어끼리, 고유어와 고유어끼리가 아닌 한자어와 고유어, 외래어의 혼합이 늘어나고 있는데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조어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.

시대와 생활을 반영한 것일 수 도 있지만, 무분별하게 즉흥적이고 상업적인 지명을 사용하기 보다는 고유성과 역사성이 깃든 지명을 발굴하고 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.

국토지리정보원(원장 사공호상)은 **고유어 지명을 지명제정에 적극적으로 활용**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해,

전국의 **미고시된 지명을 조사**하고, 국토개발로 인해 **사라진 고유 지명의 발굴**과 **일제에 의해 왜곡된 지명 정비**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

